

‘精油産業은 效率性이 重視되어야 한다’

- 지나친 公益性강조는 賢明하지 못해 -

対談：具 翼 謨 〈大韓石油協會·弘報課長〉

世界 7대 메이저의 하나인 英國의 BP가 지난 해 조용하게 韓國에 上陸했다. 과거에 他 메이저들이 合作精油工場을 건설하기 위해 合作先의 환대 속에 떠들썩하게(?) 國內에 진출한 것과는 달리 BP는 國內에 너지市場의 潛在力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하에 작년 7월30일 서울에 韓國支社를 개설했다.

BP에 入社하여 20년동안 石油人의 외길을 걸어온 M. J. 쿠퍼 初代韓國支社長을 만나 國內外 石油問題에 관한 高見을 들어 본다.

— 韓國支社長으로 부임하여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받은 韓國에 대한 印象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근무하기에 매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韓國이 經濟開發目標을 달성하는 힘과 速度에 큰 감명을 받았읍니다.



— 韓國支社에는 자원해서 근무하게 되셨는지요? 아니면 本社의 發給을 받고 本意아니게 부임하셨는지요?

부임전 3년간 몇차례 韓國을 訪問적이 있습니다. 그 때 韓國에서 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自願했읍니다.

— BP에 근무한 기간과 石油産業에 투신하게 된 특별한 動機라

도 있는지?

大學을 졸업하자마자 곧 장 BP에 入社했읍니다. 실은 大學에 다닐 때도 BP로부터 月給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휴일에는 社에 나가 일했지요. 大學時節을 포함해서 23년째 BP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石油産業에 종사하고 특히 BP에 入社하게 된 動機는 BP에 근무하던 삼촌의 영향때문이지요. 어렸을 때 삼촌의 職業에 큰 매력 을 느꼈지요.

— 지난 겨울은 매우 추웠읍니다. 韓國의 기후에는 적응이 되셨는지요.

기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의 취미는 스키지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韓國의 스키장을 모두 다녔읍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水上스키를 즐기지요. 작년에는 漢江과 淸平에서 水上스키를 탔읍니다.

- 海外勤務는 韓國이 처음이신 지요?

아닙니다. 海外勤務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오스트랄리아, 中東, 西아프리카 등에서 근무했지요. 会社勤務의 약 반은 海外에서 한 셈이지요.

- BP가 서울에 支社를 설치하게 된 目的은?

歷史적으로 볼 때, BP는 太平洋沿岸國에서의 活動이 미미했습니다. 알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BP는 中東에서 설립되어 中東을 기반으로 유럽, 아프리카에서 成

一 이제 韓國의 石油產業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現地에서의 直接經驗에 비추어 韓國精油產業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點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BP는 韓國의 精油產業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고, 經驗도 없기 때문에 韓國精油產業의 當面問題에 관해 언급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韓國의 精油產業도 全世界精油產業이 안고 있는 것과 같은 問題點을 안고 있다고

態를 逆오일쇼크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支社長님께서서는 이러한 現狀이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 지요. 그리고 長期的으로 볼 때 이러한 現狀이 石油產業의 立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 問題에 대해서 最近 수개월동안 世界的으로 많은 論議가 있었지요. 저는 引上이든 引下이든 急激하고 대폭적인 原油또는 製品價格의 變動은 世界的인 經濟安定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未來를 展望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만, 最近의 OPEC 및 非OPEC 原油價格의 動態를 살펴보면, 市場이 安定되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樂觀視되고 있습니다.

長期的으로 보면, 經濟가 活性化되고, 石油需要가 늘고, 고갈되고 있는 石油資源의 開發費도 上昇하기 때문에 原油의 實質價格은 오른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까지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可能性은 매우 큼니다.

- 일부 石油專門家들은 原油價格이 배럴당 26 달러線으로 더 下落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습니다. 追加引下可能性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現在의 價格水準으로 原油市場은 安定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3월14일에 끝난 OPEC 런던 石油相회의는 基準原油價格과 產油量쿼터를 難産끝에 간신히 合意를 보았지만 OPEC의 役割과 機能은 현저히 弱화된 것

● OPEC은 本質적으로 性格이 다른 國家들의 集合體입니다. 따라서 主要한 問題에 대한 意見의 不一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長했습니다. 그러나 最近에는 太平洋沿岸地域에서 事業을 擴大해 오고 있으며, 韓國은 에너지輸入 需要가 클 뿐만아니라 石油產業에서 必要로 하는 裝備를 제작·수출할 수 있는 막대한 施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傍系會社를 위해 支社를 設置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國家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一 韓國에서의 事業은어떻습니까? 당초 예상한 대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事業進行狀態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規模는 아주 작지만, 韓國은 급속하게 成長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서울支社의 發展을 위해서도 계속 좋은 機會가 있을 것으로 樂觀하고 있습니다.

생각됩니다. 즉 需要減少로 인한 過剩施設問題, 앞으로 原油보다 製品輸出을 增加시키려는 產油國의 壓力, 그리고 需要構造變化에 따른 精製施設改替의 必要성과 같은 問題들이지요.

一 韓國精油產業의 가장 시급한 當面課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앞서 말한 問題點이 當面課題가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시급한 課題라면 韓國의 精油產業이 原油選擇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伸縮性을 갖고, 앞으로 予想되는 需要變化에 보다 탄력성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一 最近 原油價格은 需要減退 등으로 弱勢에 있으며, 이미 OPEC 및 非OPEC 國들이 대폭적인 油價引下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事

로 보입니다. OPEC의 將來를 어떻게 보시지요?

OPEC은 本質的으로 性格이 다른 國家들의 集合體입니다. 따라서 主要한 問題에 대한 意見의 不一致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會員國들은 孤立해서 는 누릴 수 없는 힘과 影響력을 行使하고 있으며, 따라서 OPEC은 다시 回復한 사우디의 리더십 下에서 계속 存続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消費國들은 產油國에 대한 關心을 잃지 않게 市場의 安定에 많은 關心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英國은 最近 油價引下를 주도함으로써 OPEC의 油價引下에 결정적인 役割을 했습니다. 英國이 앞으로도 原油價格과 生産面에서 OPEC에 對한 지렛대 役割을 할 수 있다고 보시지요?

質問에 적절히 答하기 위해서는 우선 BNOG(英國國營石油會社)의 立場을 說明할 필요가 있습니다. BNOG는 英國北海產原油의 약 51%를 販賣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들 原油는 小規模石油會社들, 특히 美國의 獨立系石油會社들에게 販賣되고 있습니다. 이들 會社는 자체의 精油施設 또는 販賣網을 갖고 있지 않으며, 基本的으로 現物市場에 石油을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NOG는 政府販賣價格이 現物市場과 큰 차이가 날 경우 강력한 壓力을 받게 됩니다.

‘OPEC에 對한 지렛대 役割’의 能力問題에 대해서 BNOG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즉 市場을 lead하기보다는 市場趨勢에 따라가려는 경향이며, 또한 英國의 北海產原油 하루 2百萬배럴가

지고는 지렛대 役割을 할 수 있는 實質的인 힘이 없습니다.

— 73년 1次石油波動이후 石油供給者로서 메이저의 役割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原油 및 製品의 供給者로서 메이저의 位置를 어떻게 予想하십니까?

메이저의 役割은 產油國들이 下流部門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變해 왔고 또 계속 變할 것입니다. 메이저들은 대부분 事業의 flexibility와 開拓과 販賣技術을 開發함으로써 生存하게 될 것입니다. BP는 이미 이 分野에 깊숙히 진

출產業을 公益事業(utility)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效率性이라는 觀點에서 현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精油施設이 過剩狀態입니다. 따라서 平均이상의 收益을 기대할 수 있는 展望은 없습니다. 效率이 높고 flexibility가 좋은 精油產業은 中期的으로 合理的인 收益을 얻을 수 없지만, 대부분의 收益은 계속 上流部門에서 올릴 것입니다.

— 原油價格의 下落으로 인해 代替에너지開發努力을 소홀히 하게 되고 因此때문에 앞으로 또 한차례의 石油波動이 일어날 것이라

●韓國精油產業의 當面課題는 原油選擇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伸縮性을 갖고 앞으로 予想되는 需要變化에 탄력성있게 대처하는 것이다. ●

출하고 있습니다. BP는 단순한 石油會社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메이저의 役割 특히 BP의 役割이 變하고 있는 것은 BP가 石炭, 原子力과 같은 他에너지分野와 BP의 전통적인 深査技術을 이용할 수 있는 鉅物資源開發과 같은 他業種에 진출함으로써 事業을 다양화하게 된 結果입니다. BP가 현재 家畜飼料과 畜産分野에서도 세계적인 會社라는 事實을 알게 되면,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食糧(food)도 일종의 에너지이지요.

— 將來石油問題를 論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資料와 현재의 狀況으로 볼 때, 石油產業또는 精油產業의 展望을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의 나라에서 政府는 精

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 지요?

물론 油價下落은 代替에너지開發의 速度를 늦출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石油輸入國들은 한층 供給波動의 위험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中東은 항상 不安한 地域이며 이로 인해 危機는 항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石油波動은 實際 物量의 不足보다는 危機感에 對한 認識때문에 일어났으며, 일부에서는 작년 美달러貨의 強勢를 3次오일쇼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3次오일쇼크의 振幅은 아마도 石油輸入國들이 IEA의 機能을 利用하고 그들의 在庫를 관리하는 效率性(efficiency)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